



일본 정부의 재보험을 통한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박정희 선임연구원

■ 일본수출보험공사(NEXI: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는 올 하반기부터 대형 손보 3사의 태국 현지법인들이 자국기업에 판매하는 무역보험에 대해 재보험 협약을 맺음.¹⁾

- 이번 제휴로 태국의 일본계 기업은 수출업무에 따른 정치적 위험과 자연재해 등의 비상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됨.
 - 태국에서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국으로 수출할 경우, 일부 기업들은 스스로 관련 위험을 감수하거나 유럽 보험회사 등에 재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유럽 금융위기로 사실상 모두 인수가 중지된 상태임.
- 이번 협약으로 무역보험을 활용한 일본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 이번 협정으로 태국에서 농기계·건설기계 등을 생산하는 일본계 제조업체는 미얀마²⁾ 등 제 3국가로 기계류를 수출할 때 수반되는 대금회수 위험 등을 줄일 수 있게 됨.

- 최근 일본의 농기계 제조업체와 대기업 상사(商社)들이 가격경쟁력이 있는 태국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얀마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태국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일본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임.
- 지난 1월에는 NEXI가 미얀마 발전소와 시멘트 공장 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은행 대출에 대한 무역보험을 8년 만에 재개, 5억 달러의 인수 범위를 설정한바 있음.

(산케이 외, 5/9)

1) 태국현지법인 3사로는 MS&AD홀딩스(Mitsui Sumitomo Insurance Co., Ltd와 Aioi Bangkok Insurance Co., Ltd), NKSJ홀딩스(Sompo Japan Insurance(thailand) Co.,Ltd), 도쿄해상홀딩스(Tokid Marine Sri Muang Insurance Co., Ltd)가 있으며, 지난 태국 대홍수 피해로 자국기업의 손해보험금(약 9천억 엔) 가운데 약 40~50%를 재보험사가 부담한 바 있음.

2) 아시아 최대의 쌀 수출국인 미얀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농업의 비중이 약 30%로 높은 수준이며, 농기계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임.